



시범경기 열기 16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24 KBO리그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시범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휴일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기다림을 알았다...김도영의 타격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범경기에서 타격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KT 시범경기 14-4 대승

2루타 포함 3안타 활약...크로우 5이닝 5피안타 2실점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깨웠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범경기 8차전에서 황대인의 스티리언 포함 장단 16안타로 14-4 대승을 거뒀다.

2번 자리에서 박찬호와 테이블 세터를 구성한 김도영이 2루타 포함 3안타를 터트리면서 승리 점수에 섰다.

1회 첫 타석에서부터 김도영의 안타가 터졌다.

1사에서 KT 선발 김민을 상대로 중전안타를 만든 김도영은 도루로 2루로 향한 뒤 최형우의 적시타로 홈에 들어왔다. KIA는 최형우에 이어 소크라테스와 김선빈의 3연속 안타로 점수를 추가했다.

김도영은 2-1로 앞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이번에도 중견수 쪽으로 공을 보내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김도영은 KT의 두 번째 투수 박세진을 상대한 4회에는 실책으로 3타석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1사 1·2루에서 세 번째 타석을 맞은 김도영이 3루수 앞으로 강한 타구를 보냈다. 이때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김도영이 다시 1루를 밟았고, KIA의 점수가 올라갔다. 김도영은 최원준의 볼넷과 폭투로 3루까지 간 뒤 최형우의 2루 땅볼 때 홈에 들어와 득점을 추가했다.

7-4로 앞선 6회 김도영이 장타를 선보였다.

무사 2루에서 타석에 선 김도영이 이번에는 우중간을 가르면서 1타점 2루타를 기록했다. 김도영은 대타 고종욱의 적시타로 홈을 밟았다. KIA는 7회 황대인의 스티리언 등을 더해 대거 7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3안타 활약을 펼친 김도영은 전날 경기가 끝난 후 ‘존’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영은 “어제 경기도 그렇지만 그전 경기도 되

게 안 좋았다. 무조건 다 쳤다. 스트라이크 근처에 오는 공을 다 쳤다. ABS를 통해 존이 커진 것도 있지만 그것 상관없이 다 쳤다. 나쁜 공까지 다 건들었다. 어제 경기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다.

김도영은 시즌이 끝난 후 참가한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에서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인대 봉합술을 받았다. 우려와 달리 스프링캠프에 참가하고 정상적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상상으로 인해 마음이 급했다. 배팅 훈련량이 부족했던 만큼 김도영은 실전에 나서자마자 공격적으로 타격을 했다.

김도영은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야구의 신이 ‘지금부터 존 신경 안 쓰면 을 시즌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감은 올라왔으니까 존을 신경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경기였다”며 “앞서 구중, 타이밍만 생각하면서 초구부터 막 나갔다”고 말했다.

김도영은 16일 경기가 끝난 뒤 특별 타격훈련도 하고 전력분석팀과 나성범을 붙잡고 시즌을 위한 답을 찾았다.

김도영은 “전력 분석팀 코치님도 많이 알려주셨고, 경기 끝나고 특타도 치고 기계볼도 보고 했다. 나성범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도 많은 도움이 됐다. 선배님의 경험담을 많이 들었다. 선배의 존을 물어보고, 어떻게 내 존을 설정해야 할 지 물었다”고 말했다.

김도영은 세밀하게 전력을 잡고 17일 다시 타석에 섰다. 그리고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 세 번째 타석 땅볼은 어렵지만 4번째 타석에서 만든 우중간 2루타는 만족스럽다.

김도영은 “존을 신경 쓰고 있는데 세 번째 타석에서 손을 많이 썼다. 4번째 타석 안타는 만족스럽

다. 초구 보고, 2구째 직구 오면 무조건 칠 생각이었다. 스트라이크를 먹었지만 내 존이 아니어서 안 쳤다. 그리고 이후 원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원래라면 내갔을 땀공을 안 쳤다. 땀공 직구를 칠 생각이었지만 불이 왔다. 이후 거기에서 초구 왔던 곳에서 한 칸 더 안으로 공이 들어왔다. 파울 홈런 이후 타격을 했다. 오랜만에 잘 맞은 타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전까지는 시범경기니까 괜찮다는 생각이었는데 어제 경기 끝나고 멘탈이 흔들렸다. 아무 리 시범경기지만 이전 수정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한 것 같다”고 웃었다.

마운드에서는 윌 크로우가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 나서 KBO리그를 위한 리허설을 끝냈다.

이날 75구를 소화한 크로우의 성적은 5이닝 5피안타 1볼넷 5탈삼진 2실점. 직구(18개) 최고 152km, 평균구속150km를 기록했다.

19개의 투심(146~151km)으로 승부한 크로우는 체인지업(14개·132~140km), 커브(8개·128~134km), 슬라이더(8개·134~139km), 커터(8개·139~143km)도 구사했다.

한편 KT와 주말 2연전이 펼쳐진 챔피언스필드에는 구름 관중이 몰려 뜨거운 야구 열기를 보여줬다. 16일에는 8695명이 입장했고, 17일에도 8112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김여울 기자 wool@

폭발력을 얻었다... 운영철의 피칭

구속 늘리는 자세 찾고 구중까지 추가 ‘업그레이드’ 순조

KIA 타이거즈 운영철의 ‘2024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년 차 운영철은 올 시즌에도 KIA의 선발 한 자리를 채운다. 총암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프로에 뛰어난 운영철은 25경기에 나와 122.2이닝을 지키면서 4.04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 7패를 기록했다.

스피드보다는 정교함과 신인답지 않은 배정으로 승부하면서 프로 첫해 선발 자리를 차지했고, 끝까지 로테이션을 지켰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을 앞두고 운영철은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겨울 미국 드라이버라인에서 성장을 위한 ‘힌트’를 얻었다.

힘을 더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폼을 확인했고, 구중도 더했다. 지난 시즌 던진 슬라이더가 커터성이라는 판단 아래 커터를 만들었고, 각이 큰 새로운 슬라이더를 준비해 왔다.

운영철은 캠프 기간 그림을 바꾼 커터 스피드를 올리고, 우타자 하이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운영철은 지난 16일 KT 위즈와의 시범경기에서 두 번째 실전을 소화했다.

1회 2사 1루에서 3루수 김도영의 실책이 나오면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로하스에게 3점포를 허용한 게 아쉽지만 지난 시즌과는 다른 힘과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이날 4이닝 78구를 소화한 운영철은 직구 최고 142km를 찍었다. 39개의 직구를 던져 평균 139km를 기록했고, 커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8개의 커터(133~137km)를 던진 운영철은 체인지업(13개·125~130km), 슬라이더(5개·123~131km)와 함께 커브(3개·115~121km)도 구사했다.

이범호 감독은 17일 KT전에 앞서 “스피드가 작년보다 더 나오고 공을 던지고 난 뒤에 몸상태도 좋다. 어제 스피드를 많이 낸 것 같다. 70구 이전으로 투구 개수를 끊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으면 80구 정도까지 생각하라고 했고, 날씨가 좋아서 80구를 던지게 했다”며 “그때까지도 힘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확실히 작년보다 어떻게 공을 던져야 스피드가 나오는지도 생각한 것 같고,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운영철의 시즌 준비 과정을 평가했다.

또 “직구 스피드 자체가 본인이 던지는 스피드보다 3~4km가 더 나오니까 확실히 체인지업 구중에 우타자들이 스윙을 많이 한 것 같고, 뭉뚱 커터성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본인이 던질 수 있는 구중에 대해서 다 실험하는 느낌이였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 팔 스윙 자체가 빨라지니까 타자들이 파울 나는 것보다 스윙이 많았다. 타자들이 ‘공에 힘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되니까, 본인도 공 던지고 만족하는 피칭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

▶KIA 타이거즈의 운영철이 지난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